

벼랑끝에 몰린 다저스 그레인키가 구해낼까

매팅리 감독 “커쇼·류현진 막강 선발 3인방 희망… 3연승 가능”

오늘 세인트루이스와 NLCS 5차전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류현진의 호투로 마련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

다저스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NLCS 4차전에서 2-4로 졌다.

잭 그레인키와 클레이턴 커쇼 등 ‘원투 펀치’를 내세우고도 1·2차전을 빼앗긴 다저스는 전날 3차전에서 류현진의 호투를 앞세워 첫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이날 패배로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다.

3차전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던 홈런이 두 방이나 터지며 전세를 뒤집었다던 다저스의 야망을 무너뜨렸다.

다저스 선발 리키 놀라스코는 3회 2사 3루에서 맷 홀리데이에게 왼쪽 스핀아웃에 박히는 2점 홈런을 맞고 고개를 숙였다. 홀리데이는 3차전까지 12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다가 시리즈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했다.

다저스는 4회말 애드리언 곤살레스의 2루타와 앤드리 이시어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1, 2루 기회에서 아시엘 푸이그와 A.J.엘리스의 안타로 1점씩을 빼내 2-3으로 추격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이어진 1사 1·2

루에서 스킵 슈마커 카드를 꺼냈지만 유격수 병살타로 잡히면서 추격 기세가 꺾였다.

반대로 7회초 1사 후 투수 세스 매네스를 빼고 대타 세인 로빈슨을 투입한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매서니 감독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로빈슨은 J.P.하월의 2구째 몰린 체인 지업을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살짝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려 스코어를 4-2로 벌렸다.

NL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에서 패해 벼랑 끝에 몰린 돈 매팅리 감독은 경기후 그레인키, 커쇼,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막강 선발 투수 3인방’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5차전 선발로 나선 잭 그레인키와 19일 6차전이 성사되면 선발 등판하게 될 클레이턴 커쇼에 대한 기대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매팅리 감독은 “3차전에서 잘 던진 류현진도 있다”고 덧붙였다.

승부가 7차전까지 이어질 경우에 류현진을 선발 투수로 내세우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셈이다.

매팅리 감독은 “3연승을 해야 한다면 어려운 과제로 보이지만 한 경기만 이기겠다면 할 수 있다”고 5차전 승리가 최우선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파크에서 벌어진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3차전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1-0으로 꺾고 1패 후 2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명예회복을 외치며 마무리 훈련에 들어간 KIA가 코칭스태프 인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이거즈 부활 첫걸음부터 삐걱

2·3군 육성할 코치진 공석에

3군담당 차영화 낙상 사고

코칭스태프 인선 안팎서 시골

타이거즈의 부활 ‘2군 바로세우기’가 먼저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13일 합평 헬리콥터스 필드에서 진행된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2014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1위에서 8위로의 추락,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으로 인한 실추된 ‘자존심 회복’이 훈련을 재개한 선수단에게 숙제로 주어졌다.

유망주 육성은 자존심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자 목표가 됐다.

시즌이 끝나고 후반기 단장은 ‘선수육성’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김 단장은 “그동안 선수 육성 방향이 잘못됐다.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동열 감독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백업 육성을 우선 목표로 마무리 캠프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1군 만큼이나 2·3군 운영이 타이거즈의 앞날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갈등과 약제가 호랑이 군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즌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면서 코칭스태프에 공석이 생겼다. 시즌 도중 2군행을 자처했던 이순철 수석코치가 결국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을 떠나게 되면서 선동열·이순철 두 레전드의 조합이 2년 만에 결별 수순을 밟았다. 시즌 중반 보직이 바뀌었던 김경호·박철우·조규제 코치도 함께

집을 싸야 했다.

공석이 발생한 코치진에 불의의 사고도 있었다. 3군 육성을 담당했던 차영화 코치가 낙상사고로 목뼈를 크게 다치면서 위중한 상태다.

뒤숭숭한 분위기와 KT 창단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외부 영입이 수월하지 않으면서 코치진 구성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대화 2군 총괄코치가 수석코치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 내부 코치진 이동도 불가피하다. 2군 총괄코치가 ‘핫코너’다.

KIA는 최근 5년 동안 4명의 코치가 2군을 총괄했다. 차영화 코치에 이어 김대진, 박철우, 한대화 코치로 계속적인 변화가 있던 자리다. 팀 기분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지만 변동이 심하면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1년 만에 수장자리가 바뀌게 됐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팀을 꾸려나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사 영입에 실패한 구단은 내부에서 수장을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즌 후반, 차기 2군 총괄코치라며 소문이 돌던 인물이 소문처럼 최종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서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올 시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중도에 보직이 바뀐 인사인 만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군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KIA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체적인 논의 없이 방출선수 명단이 꾸러지고 통보되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올 시즌 1군은 물론 2·3군 운영에도 허점이 많았다.

타이거즈 전통을 살리는 일, 2·3군 바로잡기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체전 내일 개막... 요트 타고 성화봉송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이 시작된 16일 인천시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에서 성화봉송단이 요트를 타고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전은 18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펼쳐진다. /연합뉴스

말리전 승리 흥명보 감독 “팀 플레이 잘 이뤄졌다”

“선수들의 개인적인 부분보다 팀플레이가 잘 이뤄진 것에 만족합니다.”

흥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15일 충남화 2군 총괄코치가 수석코치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 내부 코치진 이동도 불가피하다. 2군 총괄코치가 ‘핫코너’다.

KIA는 최근 5년 동안 4명의 코치가 2군을 총괄했다. 차영화 코치에 이어 김대진, 박철우, 한대화 코치로 계속적인 변화가 있던 자리다. 팀 기분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지만 변동이 심하면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1년 만에 수장자리가 바뀌게 됐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팀을 꾸려나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사 영입에 실패한 구단은 내부에서 수장을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즌 후반, 차기 2군 총괄코치라며 소문이 돌던 인물이 소문처럼 최종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서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올 시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중도에 보직이 바뀐 인사인 만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군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KIA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체적인 논의 없이 방출선수 명단이 꾸러지고 통보되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올 시즌 1군은 물론 2·3군 운영에도 허점이 많았다.

타이거즈 전통을 살리는 일, 2·3군 바로잡기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무3패)를 거둔 흥 감독은 “팀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력”이라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오늘 선수들의 팀플레이가 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과의 경기를 통해 수비 조직력이 어느 정도 안정됐고 이후 공격쪽의 세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수에서 원활하게 들어맞았다”고 자평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이근호(상주)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할은 물론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할도 충분히 잘 해줬다”고 합격점을 매겼다. 흥 감독은 공격 루트에 대해서도 만족해했다.

흥 감독은 “측면과 가운데를 두루 활용하며 지난 어떤 경기와 비교해도 공격 루트가 다양했다”며 “물론 전반에 가운데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브라질전에서 이창용에 치우쳤던 공격 루트가

오늘은 균형 있게 배분됐다”고 말했다.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때에 소

설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글을 남겨 물의를 빚은 기성용(선덜랜드)에게도 높은 점수를 매겼다.

흥 감독은 “최근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평가전을 통해 사회하는 마음으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대표팀은 이날 해산한 뒤 다음달 15일 예정된 스위스의 평가전을 앞두고 재소집된다. /연합뉴스

광주 FC ‘10월 독도의 달’ 맞아 플래시몹 경연 페스티벌

광주 FC가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플래시몹 경연 페스티벌을 연다.

광주가 K리그 챔피언 29라운드 부천과의 경기가 열리는 20일 광주학생 독도 플래시몹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역 초·중·고 500여개팀 1만 여명이 참가한다.

행사는 경기가 끝난 뒤 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에서 진행되며, 심사위원 6명의 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 등 개인·단체상 등의 표창이 이뤄진다. 광주 FC는 최우수 7개교에 대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인간태극기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도 펼쳐진다.

이를 위해 광주는 그라운드를 태극문양으

로 꾸는다. 또 참여 시민들과 대형 태극기를 완성한 뒤 예극가를 제창할 계획이다. 기네스북 도전은 인터넷(www.gjetv.net)으로 생방송된다.

지역축구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 제1회 광주 FC컵 시민축구대회가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 축구연합회 소속 70여개팀(1400여명)이 참가하며 결승전은 오는 27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오후 6시30분에는 광주 FC 후원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에서 공식 출범한다. 지역 유소년 축구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후원회는 2015년까지 지역 초·중·고 축구팀 창단을 지원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생활체육회, 배구·수영·골프 등 잇단 대회 개최

광주에서 풍성한 생활체육행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 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최근 전남대체육관과 동강대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 9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남녀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시 배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자모부 18개팀, 교직원부 8개팀, 장년부 10개팀, 남자클럽 16개팀, 여자클럽 14개팀 등 5개부 66개팀 선수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배구대회에 이어 19일에는 첨단 대공원골프장에서 제3회 광주시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열리며, 20일에는 제5회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수영대회가 영주 실내수영장에서 열

려진다. 24일에는 제4회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와 제19회 광주시연합회장배 게이트볼대회가 각각 무안C.C와 광주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다.

26일에는 제10회 전국 이순테니스대회(광주교육대 테니스장), 제1회 한마음 생활체육 스쿼시대회(첨단 생암 스쿼시장)가 진행된다. 27일 송산 활공장 일대에서 열리는 제3회 광주시장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이어 제 25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10월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는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리며 5개 자치구 생활체육 대표선수단 6000여명이 참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